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4월 2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72 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인터넷서 부처님 만나세요"

종단 · 사찰 · 신행단체 30여곳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어디서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조계종 천태종 등 각 종단과 교구본사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불교알리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내 불교 관련 사이트는 조계종 총무원 등 사찰 홈페이지 8개를 비롯 신행단체, 학술, 문화·문화재 등 약 30여개. 사이버 공간 속에 부처님 세계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설된 조계종 총무원 홈페이지는 최근 종단내 주요정보 누출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불교 관련자료 자동검색 기능을 추가하며 재구성됐다. 또 게시판 기능에 '조계종에 바란다'를 신설하고, 앞으로 전국사찰 주소·전화번호와 불서자료, 국내외 불교 사이트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사찰로는 법주사 직지사 봉도사 송광사 등 4개 조계종 교구본사가 홈페이지를 개설, 인터넷 포교에 나섰다. 불국사와 은해사는 5월말과 6월 초, 대둔사와 백양사는 연내 개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 천태종 삼광사와 일승종 법운사도 인터넷 포교를 시작했다.

교계최초로 독자적 서버를 갖고 불교전문 정보센터로 자리잡은 '부다피아'는 18개 교계단체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 불교계 전산화를 이끌고 있다. 또 인터넷 검색엔진 '야후'에 한국불교·한국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5월3일부터 LG정보통신 '채널아이'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한다.

이밖에 고려대장경연구소, 목아박물관 등도 독특한 볼거리들을 제공,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사이버도서관'도 동국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도서정보를 전산화, 도서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교계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바람은 가상공간을 이용한 포교와 '불교의 세계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풀어야할 문제도 적지않다. 사이트를 개설한 대부분의 불교 홈페이지가 한글지원에 그치고 있어 세계 무대 겨냥은 아직 미흡하다. 이밖에 자료 공유와 홈페이지간의 연결, 자료추가(업그레이드)를 통한 정보의 '신선도 유지'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8면으로 이어집니다 ☞

◇조계종 홈페이지 초기화면

◇부디피아 초기화면

촛불기원

불기2542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축제가 서울을 비롯 전국 주요 도시에서 26일 일제히 봉행됐다. 사진은 서울 조계사 앞 연등축제 회향마당에 3만개 촛불로 설치된 '함께 이겨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기원문. 〈사진=고영배 기자〉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수덕사서 참선철야 합시다

불자들은 사찰에서 참선 철야정진하기를 발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인연이 닿기란 쉽지않은 현실입니다.

때마침 경허 만공스님의 법기가 서려 있는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국난극복을 위해 참선으로 철야정진을 합니다. 한국선종의 본찰에서 정통으로 하는 참선 철야정진에 적극 동참하셔서 자혜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일 시: 5월 25일(월) 오후9시~26일 오전3시(출발 25일 오후5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주관: 조계종 수덕사
후원: 국민회의 연등회 · 자민련불자회 · 한나라당불자회
군승단 · 경승단 · 불교방송 · 불교TV · 현대불교신문사

"다시 일어섭시다"

26일 연등축제 전국 불자 '한마음'

불기2542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축제가 26일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오후2시부터 시작된 서울 연등축제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계사 앞길에 이르는 구간에서 10만여 불자와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연등축제는 오후2시 조계사 앞길에서 광처진 사물놀이 봉축상품전 등으로 막이 올랐다. 서울 경기지역 불자 5만여명이 동참한 연등법회는 오후 4시부터 동대문 운동장에서 시작, 탄생, 찬탄, 서원, 제등행진으로 이어졌다. 연등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 밝히는 등은 고통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자비와 지혜의 등이며 희망의 등"이라고 강조했다.

12면으로 이어집니다 ☞

부처님오신날 특집 28면 발행

우리는 참불자인가
'일체사경' 16조건 21면
'불자조건' 설문 22면
참불자의 모습 23면
화보 - 연등축제 이모저모 12면
에밀레종 언제 울리나 9면
문화부 장관에게 듣는다 4면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출간 7면
조계산의 두 사찰 19면
고물가 고실업시대 불교의 역할 24 · 25면

「청모구회」의 원조

"할아버지 옷갈아 입으셔야죠"
"싫어. 관두고 그냥가"

자광원 장원석할아버지(80)는 방금 청보리회(회장 장병진) 회원들의 도움으로 오랜만에 겨우 목욕을 하고서도 퉁명스럽기만 하다. 그래도 장병진 회장을 비롯한 청보리회 회원들은 그런 할아버지가 밉지 않다.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나마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다. 처음 성남 자광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원을 찾았을 때만 해도 민망하고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청보리회 회원들을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신의 손자손녀 처럼 여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청년불자들로 구성된 청보리회가 이곳 자광원을 찾은 지 올해로 어언 5년. 매 홀수달 셋째주 일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자광원으로 출동한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거동조차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려운 곳도 긁어 드리고, 목욕도 시켜 드리고, 빨래도 하고, 말 동무

도 되어 드리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20여명의 회원 각자가 이제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시키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할 정도다.

매주 토, 일요일 남산 충정사에서 법회와 경전공부를 하고 있는 청보리회 회원들은 자광원에서 봉사를 시작하면서 일상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다. 처음 찾아갈 때만 해도 연민과 동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떨어져 사는 친할아버지 할머니를 오랜만에 찾아뵙는다는 느낌이 절로 들 정도로 즐겁기만 하다. 모든 노인이 바로 전생에 우리 부모형제였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부터는 더욱 그렇다.

두달에 한 번 찾아가다 보니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보일 때면 '아! 돌아가셨구나' 하고 자연히 알게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다.

그래서 청보리회는 오는 5월부터는 한달에 한 번 셋째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새롭게 원력을 세웠다. 〈이은자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세계최초, 최단시간 100만 가입자 돌파!

소리가 보인다 PCS 016

참 억울한 일입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할 IMF 시대에 같은 이동전화를 쓰면서도 돈을 더 낸다는 것은…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월400分 사용기준)

한국통신프리텔은 이동전화의 신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1997년 6월 국내최초 이동전화 신용카드 복합서비스 실시
- 1997년 6월 업계 최다 예약가입 고객달성
- 1997년 9월 PCS 최초 지하철 공중계방식 제안 및 설치
- 1997년 10월 PCS 016 상용서비스 개시
- 1997년 10월 이동전화업계 최초 보증금제도 폐지
- 1997년 12월 PCS 최초 광분신 시스템 도입 및 상용화
- 1997년 12월 주요 일간지 선정 PCS업계 최다히트상품선정(12개)
- 1998년 4월 통합망 완성으로 완벽한 전국통화 실현
- 1998년 4월 업계 최초 양방향 문자정보 서비스 실시
- 1998년 4월 세계최초 최단기간 100만 가입자 돌파
- 1998년 5월 서울, 대구, 부산 지하철 전구간 서비스 완전 개통
- 1998년 6월 PCS를 통한 무선 데이터통신 실현
- 1998년 9월 통화량이 많아도 문제없는 지능형 기지국 실현
- 2002년 꿈의 통신 IMT-2000 상용화

부처님 오신날
PCS 016「특별할인판매」

기간 '98년 4월 26일 ~ 5월 4일
대상 스님, 종무원, 재가신도
가격 5만원부터(가입비 별도)

*PCS 016가입시 현대불교신문의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가입하신 고객은 통화료의 5%를 추가로 할인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은 배당되는 통화료 수익금을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 02)732-1522 FAX. 02)737-0697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02-732-1522)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둘기불교운동본부, 소년새마을, (사)감포심장회